

# 민주, 김민석 자책골·초선 불출마에 '지도부·중진 희생론' 불붙나

### 김민석 '사쿠라' 발언·불출마 4명 초선...중진 용퇴론 사법 리스크·사당화·분당 위기에 이재명 퇴진론도 여당발 쇠신압력...지도부 "내년 1월 쇠신 이뤄질 것"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586이 다수 포함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쇠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변절자)'라고 비판하다 그의 과거 탈당 이력이 부각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이에 김 의원을 포함한 586 세대 중진 정치인들에 대한 용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현실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운동권 중심의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여당의 인적 쇠신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희생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친명 일색의 지도부를 구성해 사당화하고 사법리스크로 당을 위기로 몰아 넣었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도 대화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쿠라 발언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586 정치인 용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을 비롯한 586 정치인들이 자기 반성은 없는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대표 신당 움직임을 두고 "정확하게 시대의 과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비난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사쿠라 발언 이후 그의 탈당 전력이 부각되면서 '586 정치인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586 세대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인 국민통합21로 이직한 전력이 있다. 김 의원의 사쿠라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는 586 정치인들이 후배 세대를 위해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586 용퇴 주장이 나왔지만 선거 승리는 명분으로 유야무야 넘기지 않았느냐"며 "내년 총선에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두 초선 의원이 현실정치에 회의를 느끼며 불출마 선언하면서 용퇴론에 힘을 실고 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586 중심의 운동권 순혈주의에 한계를 느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운동권 순혈주의, 강성 순혈주의가 강해지면서 조금만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너 빨갱이'라고 찍듯이 수박이라고 찍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광장적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다.

'증권맨 신화'로 잘 알려진 홍성국 의원은 지난 13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위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586 중심의 운동권 순혈주의에 한계를 느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운동권 순혈주의, 강성 순혈주의가 강해지면서 조금만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너 빨갱이'라고 찍듯이 수박이라고 찍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광장적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은 현재까지 총 6명이다.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의원,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장재원 의원(3선·부산 사상)의 총선 불출마 선언도 맞물렸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쇠신 경쟁에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



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론까지 나온다. 이 대표가 열성 지지층인 개혁의달에 휘둘리고 친명 일색의 지도부를 구성해 사당화하고 사법리스크로 여당에 끌려다니는 빌미를 제공해 총선 패배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도부가 이를 일축하긴 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데다 개딸들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 이 대표가 이를 외면만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나서고 있는데도 이 대표는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 분열에 대한 우려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인적 쇠신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마땅

히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다선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길을 터줄 수 있도록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여당발 인적 쇠신 압력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 인적 쇠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의 시간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은 빠르면 한 1월 중순, 2월 초순 이 시점이 민주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 광주 북구의회, 2023년 마지막 정례표창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지난 15일 2023년도 4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기관과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의정발전, 주민자치, 사회봉사 분야별 주민 유공자 26명과 공무원 8명 등 총 34명에게 표창패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주민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식전 공연에서는 국내 유일의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 연주 단체인 그룹 '소뉴'가 흥겨운 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을 선보였으며, 참석자들과 수상자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수여식 분위기를 한껏 달아 올렸다.

김형수 의장은 "올 한해 북구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수상자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묵묵히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민주 "장관 인사참사 되풀이...윤-한동훈 합작품"

###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들의 부적격 사유가 많다고 주장하며 '인사참사'가 또 되풀이됐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정보관리당 소속 부처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도 모자라 폭력전과까지 있다"고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업무적 연관성과 전문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다"고 했고 박상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LH로부터 퇴사 후 수익 원대 용역을 수주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인사참사는 상명하복식 검사문화에 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합작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에 한동훈 장관이 단 한번이라도 '아니 되옵니까'라고 만류했다면 인사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한동훈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

한다니 국민의힘의 앞날이 밝다"며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 세워놓고 직접 당무를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여의도 정치인은 믿을 수 없어 밀어내고 제 식구로 모두 채우겠다는 대통령의 불신이 당무개입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가신으로 오직 야당 대표 수사에만 골몰하던 한동훈 장관을 여당에 내러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민생과 경제는 망가지 가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쌓는 권력의 성은 국민의 손짓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